

한번 굴릴때마다 번뇌 끊어짐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1. 스웨덴 고대유적서 발견된 한 불상의 침묵

1954년 7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약 16km 떨어진 벨라렌호수의 동쪽 에케레섬에서 작은 청동불상이 발견되었다. 이 불상이 발견된 장소는 5-8세기의 유적이다. 불상의 높이는 10cm, 연화대 위에 결구 부착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이 불상은, 왼손을 앞에 들고 오른 손은 무릎 위에 드리우고 있다. <사진>

스웨덴의 학자들은 이 불상이 6·7세기경 카슈미르지역에서 제작된 작품이라고 보고 있다.

불상이 발견된 벨라렌 호수 주변은 중세 이전부터 바이킹 세력의 주축으로 발전한 원주민 스베아족이 촌락을 형성하고 집단 생활을 한 곳이다. 점차 다른 부족을 흡수·지배하게 된 그들의 해상 활동은 바이킹 시대에 절정을 이루며 콘스탄티노플에 이르는 해로를 지배하면서 유럽과 동방 사이에서 무역을 하는 바이킹을 해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나 실체는 당시 극도로 한랭한 기후 때문에 물자의 교류와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남쪽으로

고대북구의 외판섬

바이킹 불교 믿었다

민족 이동을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역사학자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기독교 역사는 비교적 늦어서 830년경 프랑스의 수도사 안스가르가 최초로 기독교 선교사로 스웨덴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 유구한 세월동안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을까? 혹시 바이킹들에 의해서 옮겨진 불교의 한 지류가 벨라렌 호수의 한 외판 섬에 정착하여 고대 북구에서 자못하게 고독한, 그야말로 천애의 로망스 불교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불상에 주목한 삼산이랑(杉山三山)은 한 불상의 배경 - 비단과 호박(琥珀)의 길이라는 글에서 '이 불상은 코탄 지방의 한 사막도시에서 제작되어 불교신자들이 많았던 중앙아시아나 시리아 부근의 고국자들이 모시고 예배하다가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 실크로드를 여행하여 시리아연안에서 로마의 식민지 도시로 운반되어 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는 이 불상의 침묵이 세 갈래의



가설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중앙아시아의 코탄에서 제작된 불상이 여행하는 불교도의 손에 의해서 흑해연안에서 스웨덴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불교의 이상적인 제왕, 아쇼카(268-232 B.C.在位)가 파견한 불교포교사단에 의한 운반이다. 아쇼카의 불교포교사들은 멀리 시리아, 마케도니아, 이집트까지 도착했었다. 그 셋은 서기 230년경 오리겐네스가 구약 에제키엘서 주해에서 "그 섬(영국)에는 드루이드(Druids)의 승려들과 불교도들이 신의 유일성에 관한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곳은 훨씬 이전부터 복음을 들을 준비가 있었다"고 쓴 것처럼 고대 영국의 한 불교지류가 봉헌하던 불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모든 것이 미스터리다. 그러나 서기 79년 이전 이탈리아의 폼페이에 전해져 화산폭발과 함께 묻힌 인도산 공예품(상)으로 만든 거울 손잡이에 발견된 사실은 고대사회 각 민족 간의 왕래가 활발하게 열려 있는 시계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스웨덴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불상뿐만 아니라 같은 스칸디나 반도의 노르웨이에서는 불상과 불교사원의 유적을 발견되기도 했다.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두 아는 이야기로 되었지만, 지금은 세간의 기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발굴을 주관한 오슬로대학에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일지스님은? 1974년 출가하여 80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82년 해인승원을 수료한 뒤 계곡 승학과 선하여 정진해왔으며, 문경 봉암사 등의 선원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불교적 삶과 현대사회에 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 온 스님은, 불교인문주의라는 독특한 영역을 심화시켜오면서 많은 불교관련 저서를 쓰고 경전과 선어록들을 번역했다.

1974년 출가하여 80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82년 해인승원을 수료한 뒤 계곡 승학과 선하여 정진해왔으며, 문경 봉암사 등의 선원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1974년 출가하여 80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82년 해인승원을 수료한 뒤 계곡 승학과 선하여 정진해왔으며, 문경 봉암사 등의 선원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1974년 출가하여 80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82년 해인승원을 수료한 뒤 계곡 승학과 선하여 정진해왔으며, 문경 봉암사 등의 선원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1974년 출가하여 80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82년 해인승원을 수료한 뒤 계곡 승학과 선하여 정진해왔으며, 문경 봉암사 등의 선원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1974년 출가하여 80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82년 해인승원을 수료한 뒤 계곡 승학과 선하여 정진해왔으며, 문경 봉암사 등의 선원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참불자의 길

염주의 의미와 사용법

지난 일요일 오후 3시 경기도 남양주 봉영사 대웅보전, 10여명의 불자들이 염주를 돌리며 절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염주는 기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불구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그 의미와 사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불자들은 의외로 적다. 그렇다면 염주는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염주의 사전적 의미는 수주(數珠)·송주(誦珠)·주주(呪珠)라고 하며 염불의 횟수를 기억하는 구슬이라는 뜻이다. 즉 염불할 때, 다라니를 외울 때, 절을 할 때 일정한 수의 구슬을 끼워 연결한 염주를 가지고 그 수를 기억하도록 하는 도구인 것이다.

<목한자경>에 의하면, "번뇌 업보를 없애고자 하면 목한자 108개를 끼워 항상 지니고, 걸거나 앉거나 눕거나 마흔하고 언제나 불발승의 명칭을 외우며, 외울 때마다 목한자 하나씩을 넘겨 그 수가 다향지면 업을 소멸하고 안락하여 위

없는 과보를 얻는다"고 하였다. 염주 하나를 굴릴 때마다 번뇌가 끊어짐을 상징하므로 입념으로 염주를 돌림에 따라 부처님 광명이 자신에게 충만해지고 죄업이 소멸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염주의 의미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염주는 일반적으로 오른손에 들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삼보의 명호를 부르면서 하나씩 앞으로 넘긴다. 불보살께 예를 올릴 때에는 팔에 감거나 목에 걸기도 한다.

합장주라고 하여 손목에 차고 다니는 짧은 염주도 있다. 염주의 수에 대해서는 여러 경전에서 실하고 있다. <다라니집경>은 108주, 54주, 42주, 21주 등 4종을, <수주승덕경>에는 108과, 54과, 27과, 14과 등 4종을, <금강정유가염승경>은 상품은 1,080과, 최승은 108과, 중품은 54과, 하품은 27과의 4종을 말하는 등 그 수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이것은 대개 108과를 절반으

로 하였을 때 54과가 되고, 또 54과를 절반으로 하여 27과로 하고, 또 108과를 10배로 하여 1,080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염주의 수는 108과를 기본으로 한다. 즉 108번뇌를 끊고 108삼매를 증득하는 것을 뜻하며, 1,080과는 108삼매를 각기 10삼매를 갖춘 것이

염불횟수 기억도구

108염주 많이 사용

불보살께 예 올릴때

팔에 감거나 목에 걸어

54과는 심신, 심주, 심회향, 심지과 등 4종을, <금강정유가염승경>은 상품은 1,080과, 최승은 108과, 중품은 54과, 하품은 27과의 4종을 말하는 등 그 수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이것은 대개 108과를 절반으



염주는 기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불구다.

과는 관세음보살의 14무의를 표시한다고 되어 있다.

염주의 재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라니집경>에 따르면 금, 은, 수호국계주(四喜樹)를 합쳐 수행의 54위를, 42과는 심주, 심회향, 심지, 등각, 묘각의 42위를, 27과는 18화인과 9무학을, 21과는 심지, 심바라밀에 불과를 합친 21위를, 14

이 불경에 나타나 있다.

대체로 모든 염주에는 가장 큰 굵기의 모주(母珠)가 있는데, 모주는 내부를 투명하게 하여 그 안에 불상이나 보살상을 넣어 작은 구멍을 통하여 보이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백팔염주를 가지고 염불을 하게 되면 우리 중생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고통과 슬픔인 백팔번뇌를 모두 소멸하고 안락을 얻게 되는 공덕이 있다는 것이다. 김중근 기자



禪과 21세기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다만 하나의 의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화두(話頭) 위에서 의심이 부서지면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일시에 부서집니다. 화두가 부서지지 않으면 다시금 화두 위에서 의심과 대면하여 끝까지 세심하십시오. 만약 화두를 포기하고도 리어 다른 문자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경전의 가르침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옛 사람의 공안(公案)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일상사의 잡다한 일 속에서 의심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모두 사된 마구니의 권속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심할 것은, 화두를 제시하는 곳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사랑으로 헤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뜻을 사랑할 수 없는 곳에다 두고 사랑하면 마음은 갈 곳이 없어서, 마치 높은 쥐가 소의 풀 속으로 들어가 바로 넘어져 갈 길이

막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가슴에 시끄러움이 있으면 다만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드십시오.

부처님의 말씀과 조사 스님들의 말씀과 여러 곳의 노스님들의 말씀이 천차만별로 다른 것 같지만, 무자(無字) 화두를 풀어나갈 일시에 모두 들어내어 남에게 묻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의 말씀은 어떠한 조사의 말씀은 어떠한 하고 남에게 한결같이 묻기만 한다면, 영원히 깨달을 때가 없을 것입니다."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다만 하나의 의심일 뿐입니다. 중생이 가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다양한 번뇌와 문제가 실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으로 보면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제각각으로 다르게 보인다. 그러나 궁

'서장' 통한 선 공부 ⑧

여사인(呂舍人)에 대한 답사

"화두 해결되면 모든문제 말끔히 사라지고"



김태완 무신대 강사·철학

극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보면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문제이다. 그 하나의 문제란 바로 모양(相)·생각, 관념, 느낌으로 분별하고 헤아리며 모양에 머무르고 모양에 매여서 모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모양을 가지고 해명하고 해결하려 하는 습성이다. 중생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들뜬 세속의 일을 모양에 매여서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정할 도(道) 진리니 초월함이니 해탈함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탈세속의 문제까지도 모양에 매여서 행하고 있다. 세속과 탈세속이 그 뜻으로 보면 다르지만, 둘 다 모양 속에 있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즉 중생의 근본 문제는 모양에 매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

생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도 단 하나뿐이니, 그것은 모양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모양 속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을 따라 이리저리 모양을 취사 간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의 구속에 한 번 벗어나는 것이다. 일단 모양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다양하게 보였던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되면서, 모든 문제가 본래 하나의 문제임을 알게 된다. 화두를 부순다(打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모양에서 한 번 벗어나는 체함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어떤 화두든 하나만 부순 것으로써 모든 화두를 다 부순 것이 된다. 진실로 완전히 부순다면, 이 화두는 부순데서 더 화두는 아직 부서지지 않는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만약 그렇게

판단된다면 아직 처음의 화두도 부수어 진 것이 아니라, 부수었다는 모양을 지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화두를 들 때 가장 명심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모든 모양을 벗어나서 허공 속에 한 점 바람도 없이 깨끗한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모양에 의지하여 이리저리 나누고 결합한 것을 가지고 만족하여서는 안 된다. 화두의 해결은 어떤 미묘한 이치의 이해도 아니고, 산뜻하고 상쾌한 느낌도 아니고, 그럴듯한 관념도 아니고, 말로써 상태를 묘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합리적 설명도 아니다. 화두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말끔히 사라지고(해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본래 없었다. 동시에 모든 이유로 사라져서 물을 것도 없고 답할 것도 없다. 그저 말끔할 뿐이다. http://www.mindfree.net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 20명 ■야간 20명 ■통신 50명	· 고등학교 및 수험능력이 있는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승려, 포교사도 가능) · 30세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4년	■통신 50명		
개호복지사과	2년	■통신 5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20명 ■야간 10명		

2. 학교연혁

1989. 7. 학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교육부 인준 고등학교 인준
1991.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제1회 졸업생 배출(가정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1994. 조계종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본교 재결·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0.12.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1. 제 10회 졸업생 배출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문 거처)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문 거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과정 입학가능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과입학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1년 8월 31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 본교 교학과: TEL 02511-2026~7 FAX 511-2028
- 일본동경본교: TEL 055-233-1848
- 부 산 본 교: TEL 051-322-32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 WWW.samhwade.com
☎ 1135-8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교육부 학력 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만 60세까지)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1년 9월 15일까지

■ 문의처: ☎ 1135-8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 511-1080
FAX: (02) 511-2028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중국최고 국립한의학 대학 ◆

한의학 과정 학생모집

1. 모집학과

학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 전문대, 대학 졸업자(선공불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 건강 진단서 1통 ·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3매
중의외과	5년	
중약학과	5년	

2. 학교 소개

- ▶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 5개, 제약공장 3개, 교육병원 12개,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주소: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25-6798171 팩스: 25-6798168
* 균일대 연기기능
◎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02-511-2026~8, 1080

남경중의약대학

중국남경 중의약 대학 박사과정 연수

한방미용연수

■ 대 상: 피부관리사, 전문미용인 한방미용이나 경철 마사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주요연수 내용: 머리경철마사지 기공미용, 추나미용, 한방팩, 한방 다이어트, 식이요법 및 응용 등

침·기공 연수

■ 대 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 주요연수 내용: 당뇨병·중풍 비만·좌골신경통 및 관절치료 등의 침치료, 맥진법, 기공 등

■ 연 수 후: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高級課程 進修 證明書)

■ 인 원: 10명 선착순

■ 문 의 처: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 전 화: (02) 511-2026~8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